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막을 내렸다. 역대 최고 선수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던 만큼, 실함과 아쉬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 기대와 달리 답답하기만 한 경기력을 보여 날 선 비판도 해보지만, 연이은 연장전에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사력을 다해 뛰는 선수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안쓰럽기만 했다. 그런데 안타까움을 분노로 만드는 건, 클린스만 감독의 웃음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웃음을 문체 삼은 인터뷰에서, 웃은 게 잘못이라면 그건 관중의 차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운동경기는 이길 때도 질 때도 있는 법이니 우리가 못하고 상대가 잘했다면 웃으며 인정해 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추진하던 일이 예상과 달리 틀거품이 될 때 나오는 허탈한 웃음일 뿐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선량해 보이는 웃음이 분노를 사는 것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만이 아니다. 선수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보이지 않았고 선수 기용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청춘 특·특



권유나 동신대 방송학과 2년

19세기 말 인류는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세계 인구가 15억 명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농업 생산성은 더 이상 향상되지 않아 당면한 문제였다.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질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해 질소 비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했고 식량 증산으로 인류는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약적인 과학·산업기술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다발적 문자와 흥기 난동 사건, 약품이나 남의 불행이나 사고, 실수, 결점, 잘못 등을 인터넷상에 공론화하고 이슈거리로 부각하는 사이버 랙카와 같은 사례가 허다하다. 여기에다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 결코 내리지 않는 집값,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과 정

기고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

작품과 대면하는 시간, 너른 공간을 가로지르는 신발 소리와 미디어 기기들에서 나오는 기계 소리, 대화하는 관람객들의 작은 목소리 말고는 다른 방해가 없다. 고요함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과 공간. 전시를 보는 건 마음 가득 안전한 충만함을 채우는 일이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마치 다른 평행세계에 몸을 옮겨 놓은 듯한 색다른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작품과 만나고, 작가의 영혼과 마주하는 시간. 어떤 작품은 과거를 상기시키고 또 어떤 작품은 끝없는 궁금증을 자아 내기도 한다. 작가가 몰입한 시간, 붓이 스쳐 간 흔적들을 따라 작품이 펼쳐 내는 저 먼 영혼의 평행세계로 한참을 들어간다. 필자는 관련 분야의 일을 하며 일로 작품을 만나는 일이 부지기수이지만 때론 고요하게 작품과 대면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 굳이 작가의 이름을, 작품의 명제를, 전시의 의도를, 또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천천히 아주 긴 시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작품이 말을 걸어 온다. 작품과 은근한 대화를 한다. 미술관은 그런 공간이다. 미술관에 간다는 것, 미술작품을 마주한다는

어떤 웃음

거기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했다는 논란마저 다시 제기되는 마당에, 한낱 지면 탈락하고 마는 국가 대항 토너먼트 경기의 감독으로서 중요한 시점에 번번이 웃음을 보이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일소비하청(一笑北海清)’의 근엄함이 능사는 아니다. 웃음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시계추처럼 규칙적인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한 칸트도 웃음을 치료제로 권하며 신체적 쾌활함이 정신에 주는 힘을 강조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웃는가에 달렸다. 파안데소처럼 마냥 기분 좋은 웃음이 있는가 하면 살며시 호감을 표현하는 미소도 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고소(苦笑), 그리고 비방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조소(嘲笑)도 있다. 정약용은 남이 아닌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아 조소하는 시를 여러 편 지었다. ‘이제는 웃으려 해도 남은 웃음이 없다’라면서도 ‘일소(一笑)’라는 시를 지었고, ‘자소(自笑)’에서는 책이라고 생긴 건 모조리 다 읽으며 청운의 꿈도 품었지만 이제 머리 벗겨진 몸뚱아리만 남았으니 내일 격정할 것 없이 오늘 한 잔 마시는 게 제일이라고 읊조리기도 했다. 때로 그 웃음의 대상은 자신을 넘어 세상의 부조리를 향한다. ‘곡식 많은 집은 먹을 사람이 없고 / 자식 많은 집은 배고파 걱정이나 / 높은 자리 켜간 건 바보들인데 / 재능 뛰어난 자 쓰이지 못하지 / 온갖 북 다 갖춘 집은 드물고 / 최고의 길은 쇠뿔기 마련이라 / 아버가 인색

하면 자식은 흥정망청 /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천치 / 보름달 뜨면 구름이 끼고 / 꽃이 피면 바람이 망쳐놓지 / 세상만사 그렇고 그런 것 / 혼자 웃는 이유 아무도 모르지’ 혼자 웃는다는 뜻의 ‘독소(獨笑)’라는 시이다. 목민 의 도리와 경제의 이상을 구체적이고 방대하게 설계하여 제시한 정약용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투정하듯 가볍게 세태를 풍자하기도 했다. 웃음을 빌리지 않고는 포착하기도 표현하기도 어려운 지점이다. 우월감에서 비롯된 초롱이 아니라 자신마저 희화화하면서 본질을 꿰뚫는 여유. 한자 ‘소(笑)’를 보면 양손을 벌리고 아장아장 걸어 오며 두 눈으로 활짝 웃는 아기의 모습이 떠올라 미소 짓게 된다.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가리웠기 쉬운 우리를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이번 아시안컵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장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선수들의 밝은 웃음이었다. 뻑뻑한 일정 가운데 모여 힘든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서로 장난치며 해맑게 웃는 선수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하고 있는 일이 좋고 곁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웃는 웃음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 무슨 이유에서든 그 웃음의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쉽지만, 그런 웃음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떤 웃음은 도무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어떤 웃음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게 한다. 선수들의 건강한 웃음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

서로 보살피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치, 지나친 학벌사회로 인해 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으니 술 쉴 틈이 없게 법도 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이고, 2023년 3월에 발표된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에서도 행복도 점수(10점 만점 기준) 5.951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 나라 중 57위였다. 특히 38개의 OECD 정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단 세 나라뿐이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라면, 화폐 소득이 낮은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국가의 국민보다 행복도 점수가 높은 조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지표는 각박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호. 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인간성은 인간이 가진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질이다. 하지만 성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정이 어떻든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태도를 들이대는, 그것이 행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도, 누군가로 인해 절대 피해를 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집을 살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해도 무너진다면, 그건 더 이상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폐허로 남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안위만 챙기며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서로에게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6·25 전쟁 이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세계에 몇 없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경제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를 헐뜯으며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요즘 사회는 안 그래도 힘든 현실을 더 각박하게 만드는 게 분명하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이제는 우리가 무얼 잊으며 살아왔는지를 인지하고 다시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언젠가 자신의 안위보다 서로 서로 챙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작품과 마주하기, ‘나’와 마주한다는 것

것은 무엇일까. 최근 몇 년 사이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며 미술관, 박물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광주만 하더라도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갤러리에도 발걸음이 북적인다. 인스타그램 인증샷의 성지가 되기도 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많이 보인다. 전시를 본다는 게 특정한 사람들의 취미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작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오픈런’이 갤러리에서도 생겨났고, 핫한 전시의 인증샷은 SNS의 의해 절자와도 같아졌다. 전공을 하고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이러한 상황들이 반갑기 그치없으면서도 이들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전시를 보며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지 의문도 들었다. 작품을 마주하는 것은 예술을 몸과 마음에 들이는 일이다. 영국의 라파엘전파 화가 존 에버트 밀레이의 ‘눈먼 소녀(The blind girl)’(1956) 작품을 보며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 앞을 보는 동생이 무지개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언니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그림 속 철나의 순간,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는 언니의 모습. 예술의 의미를 곱씹게 하는 그림이다. 예술은 우리가 당장 눈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스펀셜 들이민다.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않는 솔한 장면들을 눈앞에 선사한다. 천천히 작가가 함축한 시간으로 걸어가 보는 경험, 그 세밀한 감각과 감정의 행간을 파고드는 일이다. 이는 결국 ‘나’를 만나는 일이다. 수많은 ‘나’들이 쏟아낸 열매들

사이 나의 열매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유기체인 작품들이 들어찬 미술관이라는 공간으로 몸을 옮겨 획득하는 나의 열매이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이 드는 일상을 떠난 심연의 경험이자 번외의 휴식이다. 단지 표면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예술은 표면의 껍질을 벗겨내어 비로소 드러나는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내게 익숙한 공간과 반복되는 시간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작품과 마주하는 공간과 시간은 특별한다. 시스티나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500년 전의 이들은 천국과 지옥의 틈 사이로 들어갔을 것이며, 현재의 우리는 500년 전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파리 퐁블리 정원의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들어선 순간 우리는 100년 전 모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들어간다. 비단 과거의 시공간 뿐일까. 예술은 사회의 특수하고 예민한 지점들을 진중하고도 몽클하게 품어낸다. 언어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사는 모양새도 다르지만 결국 태어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인간의 공통된 내밀한 행성들을 들춰내는 게 예술이다.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 사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작품과 마주하며 ‘예술’이란 명제의 근원 지점에 가까이 닿아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변치 않을 ‘삶’이라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복잡하게 조금은 다른 언어로 풀어내었지만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가까이 알아차릴 수 있기를, 작품 앞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더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社說

이낙연, 민주당 쪼개기 호남에 무슨 이익 있나

설 하루 전인 지난 9일 제3지대 4개 세력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원욱·조용천 의원의 원칙과상식,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이 ‘빅텐트’ 아래 4·10 총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통합 신당의 이름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과정에서 갈등 노출과 갈수록 제3지대의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불거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방지해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 신당 출범을 무작정 비판할 수만은 없다. 다만 이념 지향과 정체성이 전혀 다른 세력들이 의석 확보를 위해 화합적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존한다. 더구나 이낙연 전 대표의 통합 신당 합류에 대해서는 흡수 통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진성

준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고작 이준석에게 흡수되려고 당을 버렸던 것이냐”며 정당법상 흡수 합당인 만큼 개혁신당의 법적 대표자는 이준석이라고 직격했다. 호남 지역민들의 민심은 분노 수준에 가깝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용산역에서 호남선 귀성객들을 상대로 손을 흔들면서 개혁신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는데 ‘철면피 같다’는 반응이 많다.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에 흡수 통합됨으로 인해 이 전 대표가 주창해 온 중도 지향의 ‘DJ 정신 계승자’를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마디로 이 전 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는 민주당 쪼개기의 결정판이라는 것이다. 양당 구도 타파는 명분일 뿐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지역 유권자들은 이 전 대표의 행보가 호남정치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불과 1000~3000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총선 구도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의료계, 국민 건강권 고려한 대응적 결단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의사회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켈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전국 의사대표 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이 파업,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결정할 경우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공공의대 신설 문제로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맡는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하면 의료대란은 불거피겠다.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정책이다. 실제로 전남 등 비수도권 병원은 매년 의사 구인난을 겪고 있고, 상급

병원이 없어 고령 중증 환자가 많음에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전남 지역민 70여만 명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의료비 유출 규모도 연간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서 자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사 총파업 사태가 보여줬듯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는 집단행동은 국민 지지보다는 불신을 키웠다든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마지막까지 의협과 대화의 채널을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협도 경쟁 투쟁을 고집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공통분모로 내세워 의료 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No Equal Drum) advertisement. Includes text about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a QR code.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advertisemen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